

지역 소식통

부안군, '팔도장터  
관광열차' 상품 출시

부안군은 부안문화재단 상권 활성화추진단,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부안 마실산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안 팔도 장터관광열차를 운영한다.

오는 5월 20일, 단 1회 출발하는 당일 부안(부안노) 특별열차는 청량리역(6시 48분경)을 출발해 영등포 수원 광택, 천안, 서대전을 거쳐 익산역(9시 55분경)에 도착한다.

각각각색(各其各色) 부안노(부안노)는 총 4개 코스로, △지연누림 1코스(채석강, 내소사) △로컬농부체험 2코스(오디수확체험 직소쪽포집) △로컬푸드체험 3코스(내소사 청자박물관 오디수확체험) △맛집탐방 4코스(출포만 갯벌생태공원 슬지제방소) 등 지역 명소와 농촌체험, 로컬푸드 및 부안 전포시장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색을 살려 구성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스마트도서관  
리뉴얼 기념 이벤트 개최

정읍시 도서관사업소(소장 김영란)는 지난 4월 새롭게 리뉴얼한 스마트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자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스마트도서관 대출 확인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정읍시도서관 회원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스마트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한 후 출력되는 확인증을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추첨을 통해 30명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연중 무휴 운영하는 무인 대출반납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기기 내에 비치된 도서를 즉시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신간도서를 비롯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500권이 구비되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리한 독서 생활을 위해 구축된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해 독서를 즐기고 작은 이벤트가 시민분들께 소소한 행복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시작

# "세입자들 입주 전 꼼꼼히 살펴"

정읍시, 혁명과 사람 주제 근대혁명 가치 재조명... 세계혁명 도시 간 역사적 경험 공유

부안군, 전·월세 사기 차단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정읍시가 '혁명과 사람'을 주제로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9일 시작, 11일 마무리되는 이번 대회에는 정읍시를 포함 5개국 6개 도시가 참여했다.

참여도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읍시와 아일랜드 코크와 더블린, 아르헨티나 알타그라시아, 독일 뮐하우젠, 중국의 난징이다.

코크와 알타그라시아는 시장이 직접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했으며 더블린은 부시장이, 뮐하우젠은 박물관장이 참여했다. 각 도시 대표자들은 대회를 통해 근대혁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다.

첫날인 9일, 정읍시는 참가 도시들과 릴레이 회의를 갖고 연대회의의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간 협력과 교류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본행사인 10일 국제포럼에서는 먼저 홍상표 교수가 기조강연자로 나서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역사 지리학을 발표했다'는 발표에서 황토현 전투를 지형과 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시정각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각국 발표자들이 올해 주제인 '혁명과 사람'에 맞춰 각국 근대혁명의 지도자 등을 집중 조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이광재 작가가 '전봉준의 혁명적 생애와 그의 나라', 독일 뮐하우젠 박물관 관장인 수잔 키미그 볼크너 박사가 '독일농민전쟁의 뮐하우젠과 토마스 뮌처'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아일랜드 더블린시 도서관장인



정읍시가 '혁명과 사람'을 주제로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성공적으로 진행,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를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

브랜든 킬링이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지도자 마이클 콜린스, 세계적 혁명가인 체 게바라 연구가이자 게바라의 친 조카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가 '남미의 농민혁명과 알타그라시아의 체 게바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서 허수이(衡水)대학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연구원인 왕지원 박사가 '중국 태평천국 운동의 난징과 홍수전'을 발표했고, 코크시립도서관 관장인 데이비드 오브라이언의 '코크시의 마이클 콜린스 기념사업'에 대한 해설 발표, 마지막 논점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앞에서 각 도시의 대표자들과 발표자들이 함께 헌화회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수시장은 전날 참가 도시들과 협의하고 참가자들이 동의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

언문에는 혁명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자매도시 체결, 상호방문 및 연대회의의 순회개최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각각 참가자들은 공동선언의 방향과 제안에 동의하고 이를 각 도시의 시의회 등과 협의한 후 자매도시 등의 결연으로 발전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는 6개 혁명도시뿐만 아니라 고창과 완주, 부안, 김제, 논산, 장성, 강흥 무안 공주 태안 보은 상주 등 국내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기념사업회 임원들이 다수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들은 이광수 시장이 주관한 오찬에 참석한 후 1시10분부터 20분간 포럼의 메인무대에 올라 정읍시민들과 타 지역의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미리 고시되어있는 서류를 지참해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동기가

있다면 계약일 이전에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예비 세입자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부안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유롭게 열람신청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위영복 재무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고창군, 유명인사 초청 릴레이 명품 강연 열어

전북 고창군이 국내 유명인사를 초청한 릴레이 명품 강연을 연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혁신성장 동력을 찾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자긍심을 높이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첫 강연은 이기원 한국푸드테크협회 회장(서울대 푸드테크학과장)이 연다. 15일 오후 2시 동리국약당에서 '800조 푸드테크 시장과 고창 식품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강을 펼친다.

이어 16일 오후 1시에는 고창문화의 전당에서 배순민 소장(KT융합기술원)이 '생성AI, ChatGPT의 개념과 활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고창군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챗GT활용방법을 교육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검증 등 주의사항 등이 다뤄질 예

정이다. 17일에는 한국사의 '큰 별'로 불리는 최태성 강사가 고창청소년들과 만난다. 오전 10시 문화의전당에서 '큰별' 최태성의 동학농민혁명 특강이 열린다.

최태성 강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가치,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흥미롭고 알기 쉽게 강의한다. 특히 '문장기표지'의 중요성과 '고창 출신' 전봉준 장군의 업적 등이 설명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고창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오후 5시 우성부페에서는 고창권 전 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초청해 '창조경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주제로 명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해수부 · 행안부 · 국가보훈처 방문 '예산 확보'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 10일 정부세종청사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1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심 군수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송명달 실장과 만나 '갯벌 세계자연유산 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과 '갯벌 생태환경교육장 조성사업'을 건의하고 내년 부처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육산지구, 회룡지구 가뭄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교촌지구 금경사지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가예산 반영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선동천 재해복구, 흥덕 송내소 하천 정비, 해리면 명고재 농로보수사업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심 군수는 국가보훈처를 찾아 윤종진 차장과 면담하고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국가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중앙부처 면담이 끝난 뒤 심 군수는

국가예산 발굴을 위한 현지 대응 전략 회의(2차)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예산실 등 17개 부서가 참석했으며 고창군 사업에 대한 부처 반응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 동향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군수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중앙부처 현지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입지 내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2차 공모

정읍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차 공모·접수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10세대 이상의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151개소이며 신청유형은 자치·관리형과 주민 동아리형으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있다.

자치·관리형은 경관개선 및 주민화합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흡연 및 층간소음 등 갈등 문제 해결을 내용으로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위해 5백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주민 동아리형은 취미, 창업, 봉사, 나눔 등의 활동을 동일 공동주택 내 입주자 8명 이상이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250만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고시/공고)→'공동체 활성화 검색'에서 신청서를 받아 공동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5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